

‘돼지는 나의 인생… 유전자센터 세워 ‘치악산 금돈’ 개발’

메트로가 만난 기업
장 성 훈 돼지문화원 대표

수도권에서 차를 이용해 경기 광주~원주간 고속도로를 타고가다 서원주IC를 나와 5분 정도 달리다 보면 돼지문화원 간판이 보인다.

돼지문화원은 오크밸리와도 아주 가까워 콘도 이용객들도 “저 건물이 뭘까”하면서 그냥 지나가기도, 몇몇은 들러서 구경을 하고 가기도 하는 공간이다.

어느덧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입소문으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꽤 이름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돼지문화원. 그곳에 가면 ‘축산 명장’이자 ‘중소기업인’, 그리고 자신을 ‘돼지 아버지’로 불러달라는 장성훈 대표를 만날 수 있다.

“나에게 돼지는 미안하고, 고마운 동물이다. 돼지는 나의 인생이다.” 돼지가 자신에게 무엇이냐는 물음에 바로 답변이 돌아왔다.

‘미안하고 고마운 존재….’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고, 또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선사하기 위해 잡을 수 밖에 없는 돼지에 대한 장 대표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말이다.

돼지에 관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노력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장 대표는 2011년 이곳 원주에 돼지문화원을 만들었다.

“
1차산업 머물지 않고 산업 다양화
마을사람과 합심해 돼지마을 꿈꿔
콜드체인시스템으로 신선하게 배달
”

당시는 국내 축산업계에서 6차 산업이라는 말이 전혀 유행하지 않았을 때였다.

“일본의 농촌에 가서 6차 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돼지를 공부하고, 기르면서 각종 질병 때문에 돼지를 수 없이 땅에 묻어야 하는 경험도 많이했다. 산업을 다양화시키자는 차원에서도 내 자신이 돼지를 기르는 1차 산업에만 머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장 대표는 사람들이 돼지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늘 꿈꿨다.

그래서 그는 축산업으로 번 돈을 투자해 돼지문화원을 열었다. 실제 돼지문화원 곳곳에는 돼지에 관한 각종 이야기를 담은 글과 사진, 여러 체험공간이 마련돼 있다. 문화원 안에 있는 식당, 카페, 계단, 회장실 등 어디를 가도 ‘돼지’를 만날 수 있다.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문에 중단됐지만 나들이를 온 가족들이 돼지와 함께 다채로운 체험도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돼지문화원을 확장하다보니 어느새 8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세미나실, 육가공공장, 직영판매장 등도 갖춰놓게 됐다.

이렇게 돼지문화원을 완성해 놓은 장 대표는 마을 사람들과 합심해 ‘돼지마을’을 만드는 거대한 꿈을 다시 꾸고 있다.

“국밥, 순대국, 스테이크 등 돼지를 원료로 한 각종 식당이 주변에 생기고, 또 마을에서 생산한 여려 농축산물을 함께 소비하고 외부에 팔고, 축산 관련 창업을 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폐교에서 축제를 열고, 우리도 일본의 마을처럼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돼지마을을 주변 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

지금이야 더 큰 꿈을 꾸고 있지만 장

대표는 한때 먹고 살기 위해 돼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

강원도 어린 시절 돼지오줌보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고기는 못먹고 내장으로 만든 순대국으로 배를 채우고, 어렵게 구한 돼지고기 몇 점을 강가의 돌판에 구워먹던 것이 돼지와 함께한 추억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낙농학을 공부하게 됐고 소든, 돼지든, 닭이든, 오리든 키워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장 대표는 “돼지는 신사적인 동물이다. 소나 닭 등은 사람이 붙어서 매일 매일 일을 해야한다. 하지만 업을 삼기엔 돼지가 가장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나마 기르기 수월했던 돼지를 택한

그는 대학을 나와 종돈회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돼지와 자신의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자신이 돼지농장을 차렸다. 90년대 중반 당시 100마리로 시작했던 돼지는 지금 2000마리로 불어났다. 이는 국내 6100개 돼지 농장 중 50번째 정도 되는 수준이다.

좋은 품종의 돼지를 만들기 위해 유전자센터까지 만들고 자신이 직접 개발한 돼지 ‘치악산 금돈’도 세상에 내놨다. 생고기 뿐만 아니라 떡갈비, 소시지, 돈가스, 육포, 양념육 등으로 제품도 다양화했다.

“우리 돼지고기는 1등급만 취급한다. 콜드체인시스템을 갖춰 전국 어느 곳으로 신선하게 배달한다. 가공식품은 첨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장 대표가 돼지고기 사랑을 늘어놨다.

신지식농업인, 동탑산업훈장, 중소기업청장상 등도 장 대표의 돼지 사랑에 힘을 보탰다. 그래서 돼지에 대해선 늘 할말이 많은 그이기도 하다.

“돼지고기는 전국민이 가장 많이 찾지만 한국은 일본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원가가 비싼 나라다. 경매시장에서의 왜곡현상도 심각하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경검역에 실패한 대표적인 예다.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전쟁이 나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만큼 중요한 주식이다. 정책과 관심,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지난 7월에 열린 ‘데모데이(IR)’ 행사에서 현지 참가자들이 한국기업 발표에 귀기울이고 있다.

코트라, 中 내륙진출 위해 멘토링 지원

현지 엑셀러레이터·분야 전문가 섭외

코트라(KOTRA)가 중국 쓰촨성 청두시 하이테크개발구에 있는 혁신창업밸리에서 12일부터 사흘간 ‘국내 스타트업 중국 내륙진출 멘토링 패키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 내륙 혁신 창업기업과 한국 우수 스타트업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국 쓰촨성은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창업 중심지로 전자, IT,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텔·IBM 등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50개사가 중국 서남지역 거점으로 쓰촨성을 활용하고 있다.

코트라는 2013년 샤오미가 투자·설립한 ‘옵티밸리’와 한·중 기업 교류를 여러번 기획한 현지 엑셀러레이터 ‘SK

FI’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 사업을 준비했다. 멘토 1명과 코디네이터 1명을 배정해 사흘동안 ▲현지 진출 멘토링 ▲시장조사 및 기업방문 ▲데모데이(IR) ▲1:1 비즈니스 상담 등 밀착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국 참가기업은 ▲더블유알디(RC카 가상레이싱) ▲한국미세먼지연구소(미세먼지 모니터링) ▲상상벗밭(スマ트 재배) ▲큐라움(구강건강 헬스케어) ▲유리벳코리아(반려동물소변진단기)

▲케이스타일즈(한류컨텐츠 플랫폼) ▲위클러버(사물융합현실 서비스) ▲진솔루션(유전자 맞춤형 헬스케어) 등 혁신 스타트업 8개사다.

중국에서는 청두시 창업생태계 소재 글로벌 기업과 현지 혁신기술 개발 관심사 50여개가 데모데이(IR)와 1:1 비즈니스 상담회에 나온다.

/양성운 기자 ysw@

中企 통계 기준 바꿨더니 ‘9988’→‘9983’

〈전체 사업체 중 中企·종사자 비율〉

중기부, 기업 단위 中企 기본통계

‘사업체’에서 ‘기업’ 단위로 변경
본사·지사, 1개 아닌 2개로 분리

정부가 간판이나 공장 등이 없는 곳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새로 통계를 잡으면서 ‘9988’이 ‘9983’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표했던 숫자인 ‘9988’은 전체 사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비율이 99%, 종사자 비율이 88%라는 의미였다.

특히 새 통계를 내면서 단위 기준을 ‘사업체’ 기준에서 ‘기업’으로 바꾸면서 소상공인 숫자가 21만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통계청과 협업해 12일 내놓은 ‘기업 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

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629만9512개로 전체 기업(630만 4313개)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은 590만5338개로 전체 기업의 93.7%를 차지했다.

기업체 종사자수는 전체가 1928만 9058명인 가운데 소상공인이 852만 9844명(44.2%),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이 1599만1410명(82.9%)이었다.

이번에 내놓은 중소기업 통계는 그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하던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기부가 가공해 발표하던 것을 2017년부터 통계청에서 제공받고 있는 ‘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통계에선 단위가 ‘사업체’였다면 새로운 통계에선 ‘기업’으로 단위가 바뀌었다.

중기부 정연호 정책분석과장은 “기존의 사업체 단위 통계에선 지점, 공장,

지사 등 1개 사업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하나로 인정해 산출하다보니 실제 기업간 통계와 괴리가 있었다”면서 “새로운 통계에선 인터넷전자상거래와 같이 외부에서 판단하기 힘든 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원룸에서 간판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본사는 수원에, 지사는 창원에 있는 회사의 경우 기존엔 1개 회사로 간주했지만 새로운 통계에선 기업별로 추산하기 때문에 2개로 분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은 2016년 당시 569만6740개에서 1년새 20만8598개가 늘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도 같은 기간 21만8111개가 증가했다.

종사자수는 같은 기간 소상공인이 28만4362명, 중소기업은 35만2645명이 각각 늘었다.

/김승호 기자 bada@

“크라우드 펀딩 교육, 유튜브로 동등하게”

와디즈 공개설명회

사전 신청 후 고유링크 통해 접속

와디즈는 오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와디즈 사옥에서 유튜브를 활용해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소

개하는 ‘온·오프라인 공개설명회’를 처음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는 누구나 와디즈 스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튜브 생중계 역시 사전 신청 후 받게 되는 고유 링크를 통해 접속한다.

와디즈는 오프라인 설명회와 유튜브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간 스타트업 관련 교육이나 행사 등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돼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와디즈는 이번 설명회로 시간이나 지역 등 물리적 한계로 참석이 어려웠던 예비 제작자들에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교육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